

HEADLINE NEWS

首都로의 인구 회귀 및 인구 재집중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1년 주민기본대장을 바탕으로 인구이동현황을 최근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사회 증가는 2000년에 비해 24.0%가 증가한 68,118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都內 인구는 1997년부터 5년 연속 전입초과를 기록했으며, 초과 폭도 커지고 있어 都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내에서도 都로의 인구이동이 확연하다. 都와 인접한 3개 縣, 즉, 카나가와(神奈川)·치바(千葉)·사이타마(埼玉)현과 비교해보면, 都의 전입 초과가 2000년에 비해 51.5% 증가한 4,985명으로 나타났다. 1958~1999년까지는 都의 전출 초과가 계속되었지만, 2000년부터는 2년 연속 전입 초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통근권이 확대되던 시기에서 벗어나, 다시 都로의 인구회귀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日本經濟新聞, 7. 20)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학교시설 부족해 아파트 신규건설 동결 추진 동경 : 江東區)

도시환경

- ② 대규모 열섬현상 관측조사 실시 (동경)

도시교통

- ③ 「디지털 주차공간 안내」 및 대중교통환승 무료 이용 실시 (독일: 브레멘)
- ④ 보행자 안전 위해 보도에서의 자전거통행 벌금 부과 (뉴욕)
- ⑤ “혼잡통행료 부과하면 대기오염이 더 악화” (런던)

사회복지

- ⑥ 청소년활동 지원 위해 대중교통 무료승차권 지급 (보스턴)
- ⑦ 시민불편 해소와 거주인의 권익 위해 해완건정책 시행 (샌프란시스코)
- ⑧ 장애인전용 대중교통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 (로스앤젤레스)

행.재정

- ⑨ 여름철 市직원의 업무효율 위해 「에너지절약형 복장 허용 (일본: 가와사키市)
- ⑩ 시민주도형 「시정평가위원회」 운영 (미국: 잭슨빌市)
- ⑪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 위해 「핫라인」 개설 (토론토)
- ⑫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 도입 (독일: 카셀市)
- ⑬ 교통체증으로 인해 「자전거 앰블런스」 등장 (런던)

① 학교시설 부족해 아파트 신규건설 동결 추진 (동경: 江東區)

일본 東京都 코우토우(江東)구는 최근 맨션(아파트) 신규건설 동결구역 내에서 새로운 맨션의 착공을 준비중인 건설업자들에게 계획을 중지·연기하도록 재요청했다. 區는 신규건설이 동결된 구역의 경우, 초등학교 등의 시설 부족으로 더 이상의 인구를 받아들여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근 區에서는 지가 하락과 도심회귀 현상으로 맨션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아,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학교 등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區는 지난 4월부터 건설업자에게서 새로 건설된 맨션 1호당 125만엔의 협력금을 거두기도 했다.

(日本經濟新聞, 6. 29)

② 대규모 열섬현상 관측조사 실시 (동경)

일본 東京都는 도시내 대기온도가 상승하는 열섬(Heat Island) 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부터 본격적인 관측조사를 시작했다. 都는 이를 위해 온·습도 등의 관측지점을 120곳으로 확대했고, 공립소학교 100곳에 자동 온·습도 기록계를 설치했다. 8월부터는 區部 중심부 20곳에서 풍향·풍속, 우량, 기압도 측정할 계획이라, 區部 3곳에서 관측 데이터를 수집해온 이전에 비해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東京都立大와 都立환경과학연구소가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都는 2004년까지 都內 식생 분포와 바람 길 등 다양한 자연조건, 건물 배치와 기온상승과의 인과관계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나아가, 2005년에는 녹화, 도로포장 등 구체적인 열섬 대책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7. 9)

③ 「디지털 주차공간 안내」 및 대중교통환승 무료이용 실시 (독일: 브레멘)

독일 브레멘市는 운전자가 주차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내 진입로 곳곳에서 「디지털 주차공간 안내」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주차장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더라도 시내 각 주차장의 상황을 미리 파악,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사진 참조).

현재 市중심부에는 8천대를 주차할 수 있는 7개 동(棟)의 주차건물이 있다. 주차권을 가진 시민들은 주차 시간 내에는 추가 요금 부담 없이 버스와 전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단위를 위한 ‘주차권플러스’는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市는 市외곽 운전자들을 위해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다. 이들이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때에도 주차권이 있으면 주차시간 내에는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www.bremen.de)

④ 보행자 안전 위해 보도에서의 자전거통행 벌금 부과 (뉴욕)

미국 뉴욕市는 최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에서의 자전거 통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市에서는 공식적인 표지판으로 자전거 통행을 허가한 보도를 제외하고는 보도에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벌칙 조항이 미미해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불법으로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최고 1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전거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태롭게 할 경우 100~300달러에 달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 간에 물리적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추가로 100~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전거운전자가 6개월 내 2번 위반한 경우, 통상적인 벌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www.nyc.gov/html/om/html/2002b/pr185-02.html)

5 “혼잡통행료 부과하면 대기오염이 더 악화” (런던)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 중심부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5파운드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런던시의 계획이 오히려 대기오염과 인명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혼잡통행료 부과계획이 적용되는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의회와 주민단체는 이 계획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혼잡통행료 부과계획에 교통량 관리, 주차, 대기의 질, 계획대상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운전자들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피해 경계를 돌아갈 경우 오히려 심각한 대기오염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나 시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계획을 제안한市長은 혼잡통행료 부과가 현재 교통량의 15%를 줄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는 여름방학 때의 교통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ETRO, 7. 16)

6 청소년활동 지원 위해 대중교통 무료승차권 지급 (보스턴)

미국 보스턴시는 이번 여름에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가 제안한 「Summer of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 계획은 이번 여름 동안 시전역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 활동, 레크리에이션, 아르바이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은 보스턴 지역의 대중교통운영기관인 ‘MBTA(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MBTA는 MBTA가 운영중인 지하철, 버스, 보트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 이용 가능한 「Roll on Pass」라는 1일 승차권을 청소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시당국은 수천명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mbta.com/newsinfo/press/pressview.cfm#788)

7 시민불편 해소와 개주인의 권익 위해 「애완견정책」 시행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市는 애완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애완견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전역과 세계의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최근 「애완견정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개 주인은 19개 지역을 제외한 공원지역에서는 반드시 개를 줄로 묶고 다녀야 한다. 또한, 개를 묶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애완견정책」의 취지에 맞춰 재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따라 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동반한 공원 이용객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애완견정책」은 해변, 공원, 야외 등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애완견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애완견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市는 앞으로 시민과 공원이용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애완견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市는 이 정책을 개에 국한시키지 않고 공원이라는 희소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애완견정책」에는 애완견을 묶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지역, 애완견 놀이터(Dog Play Area)의 설치기준(장소, 면적, 안전시설, 바닥 재질, 편의시설, 자원 봉사자 운용 등)과 이용규칙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애완견 놀이터 이용규칙에 따르면,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애완견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생후 4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발정중인 암컷은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1인당 3마리 이상 데리고 다닐 수 없으며, 개의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야 한다. (parks.sfgov.org/recpark/dogpolicy/tablecontents.htm)

8 장애인전용 대중교통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에서는 공공조직인 'AS(Access Services)'가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AS는 택시와 밴 1,400여대와 계약을 맺고, 市전역에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승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장애인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하루 전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예약할 경우 지자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AS는 당일날 예약해도 이러한 저렴한 비용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5만 2천명의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AS는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로부터 90%가 넘는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 이용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MTA의 보조금 지원비용이 조만간 연 7천5백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市는 요금 인상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은 약 30달러. 이 중 AS가 26달러를 지원하므로, 장애인이 직접 지불하는 요금은 최고 4달러 정도가 된다. (Los Angeles Times, 7. 6)

9 여름철 市직원의 업무효율 위해 「에너지절약형 복장」 허용 (일본: 가와사키市)

일본 가와사키(川崎)시는 7월부터 2개월간 市직원들을 대상으로 양복 상의와 넥타이 착용을 자율화해, 이른바 「에너지절약형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의 배경에는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현재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러한 복장으로 일하고 있고, 市간부들도 드레스셔츠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절약형 복장」에 대해 행정기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나 하고 우려하는 직원들도 있으나, 단순히 예의를 차리기 위해 양복 상의와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東京新聞, 7. 3)

④ 시민주도형 「시정평가위원회」 운영 (미국: 잭슨빌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City of Jacksonville)시는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시민주도형 시정평가제도가 정착된 곳이다. 시의 「시정평가위원회(Jacksonville Community Council)」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일반시민, 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시의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선정한다. 이 회의에는 시관계자들도 참석해 타당성 있고 현실가능한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

「시정평가위원회」는 초기에 각 이해관계자들간에 작은 마찰과 갈등이 발생했으나, 시정부가 중재자가 되어 시민단체와 전문가,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한 결과,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시정평가위원회」는 매월, 그리고 매분기별로 보고서를 발간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www.jcci.org/index.htm)

④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 위해 「핫라인」 개설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는 세수, 자산, 정보 등 각종 시자원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방지대책(Fraud Policy)」을 최근 마련했다. 부정행위에는 뇌물을 받는 부패행위에서부터 시자원을 부적절하게 운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 조직 내부적으로 운용되어온 부정방지제도를 확대 실시, 일반시민 및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자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 「핫라인」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며, 모든 신고는 익명이 보장된다.

(www.city.toronto.on.ca/audit/fraud_hot.htm)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 도입 (독일: 카셀市)

독일 헤센주 카셀(Kassel)市는 헤센주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를 개발, 이번 9월 연방의회선거에서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도 앞으로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개발된 투표용지는 플라스틱과 마분지로 만들어졌는데, 일반투표용지 크기에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구멍과 점자로 표시해놓았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장애인동등대우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방 내무부에서 부담키로 했다.

(Frankfurter Rundschau, 7. 23)

교통체증으로 인해 「자전거 앰블런스」 등장 (런던)

영국 런던에 6대의 자전거로 이루어진 「자전거 구급대」가 등장했다. 구급대는 형광색 유니폼과 사이렌뿐만 아니라, 비상약과 심근경색 억제기까지 갖추었다 (사진 참조). 「자전거 구급대」는 구급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로 위급한 환자의 응급처치나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市는, 응급상황 발생시의 현장도착 테스트를 지난 1년 6개월 동안 다양하게 실시한 결과, 자전거가 기존의 차량형 앰블런스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 경우가 약 88%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체증이 자전거를 부활시켰다고 보고 있다.



(Reuters-LONDON, 7. 24)